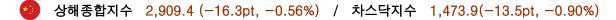
Emerging Daily

지속되는 무역협상 긴장감, 주요 이머징 하락

2019. 6. 13 목요일



상해종합지수는 사흘 만에 약세로 전환했지만 2,900p는 지켜냄. 거래대금은 2,231억위안으로 직전 거래일 대비 13% 감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기존 합의안으로 복귀하지 않는다면 무역 협상 타결은 없을 것이라 강조하면서 무역협상 우려가 지속되었음. 또한 장 마감이후 발표된 5월 통화량 지표들이 견조했으나 시장 예상을 하회했다는 점에서 다시 실망 매물이 출회함. 모든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보험, 증권, 자동차, 통신, 리테일, IT S/W 등 업종의 하락폭이 컸음. 반면 위험회피 성향 확대 및 달러 약세 기대에 금 관련주는 강세. 한편 외국인들은 상해A주를 14억위안을 순매수하는 반면 심천A주는 2억위안을 순매도하며 7거래일째 순매수세를 유지함.

😭 홍콩 H지수 10,494.8(-125.4pt, -1.18%) / 항셍지수 27,308.5(-480.9pt, -1.73%)

하락 출발한 홍콩H지수는 장중 계속 부진한 흐름을 이어감.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중 무역협상에 관한 불확실 성의 지속과 위안화 환율약세로 위험회피 성향이 강화됨. 게다가 5월 통화량 지표가 예상을 하회하고 자동차 판매 량이 부진한 것도 부정적. 업종별로 증권, 제약, 에너지, 자동차의 하락폭이 큰 반면 인프라주는 연일 상승

● 인도 센섹스지수 39,756.8(-193.6pt, -0.48%)

인도 증시는 하락 마감.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된 가운데 경제지표 발표에 대한 경계심리가 확대되었기 때문. 특히 업종별로는 부동산, IT, 경기소비재 업종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종합지수 6,276.2(-29.8pt, -0.47%)

인도네시아 증시는 하락하면서 6,300p를 하회.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의구심이 확대되면서 아세안 국가들 대부분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인도네시아 증시 역시 이에 동조하는 모습. 중앙은행은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1~5.5%로 제시하면서도 완화적인 통화정책 필요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언급

★ 베트남 VN 지수 954.2(-7.9pt, -0.82%) / HNX 지수 103.6(-0.4pt, -0.38%)

부진한 흐름을 보이던 VN지수는 내림폭을 줄여가며 전일대비 0.82% 하락 마감. HNX지수 역시 0.63% 내림. 부동산, 에너지, 헬스케어, 유틸리티 업종은 1% 넘게 하락해 지수 내림세 견인. 외국인은 BVH(바오비엣홀딩스), AST(테세코 항공서비스) 등을 순매수한 반면, VHM(빈홈즈), VNM(베트남유제품) 등을 순매도

주요 이머징마켓 금융지표 (단위: p, %, %)

| 구분 | 6/12(수) | 전일대비 | 전년말대비 | 구분 | 6/12(수) | 전일대비 | 전년말대비 |
|-----------|---------|-------|-------|---------------|---------|--------|--------|
| 중국 상해종합 | 2,909 | (0.6) | 16.7 | MSCI 이머징마켓 | 1,026 | (0.5) | 6.3 |
| 중국 심천종합 | 1,528 | (0.6) | 20.5 | MSCI 선진국 | 2,134 | (0.2) | 13.3 |
| CSI 300 | 3,691 | (0.8) | 22.6 | S&P500 | 2,880 | (0.2) | 14.9 |
| 차이넥스트 | 1,474 | (0.9) | 17.9 | KOSPI | 2,109 | (0.1) | 3.3 |
| 홍콩 H | 10,495 | (1.2) | 3.7 | 위안/달러 환율 | 6.92 | 0.00 | 0.57 |
| 홍콩 항셍 | 27,308 | (1.7) | 5.7 | JP모건 EM통화지수 | 62.05 | (0.37) | (0.32) |
| 인도 SENSEX | 39,757 | (0.5) | 10.2 | 달러인덱스 | 96.97 | 0.29 | 0.83 |
| 브라질 보베스파 | 98,321 | (0.6) | 11.9 | 인도 국채금리(10Y) | 7.01 | (0.04) | (0.36) |
| 인도네시아 JCI | 6,276 | (0.5) | 1.3 | 브라질 국채금리(10Y) | 8.01 | 0.03 | (1.23) |
| 베트남 VN | 954 | (0.8) | 6.9 | 중국 국채금리(10Y) | 3.28 | 0.03 | (0.02) |

출처: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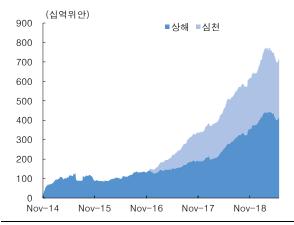


NEWS

- 중국 통계국,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7%로 15개월래 최고 (컨센서스 2.6%, 직전치 2.5%)
- ▶ 중국 통계국, 5월 생산자물가 상승률 0.6%로 4월의 0.9%에서 추가 하락
- ▶ 중국 인민은행, 5월 M2 증가율 8.5%로 시장 예상치인 8.6%를 소폭 하회
- ▶ 중국 인민은행, 5월 신규 위안화 대출액 1.18 조위안으로 컨센서스인 1.3 조위안을 하회
- ▶ 중국 리커챵 총리, 중국은 향후 더욱 많은 감세 조치와 비용 절감 정책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 할 것
- ▶ 중국, 상해판 나스닥인 과학기술창업판에 상장 승인을 받은 기업은 6개, 등록 신청 프로세스 가동
- ▶ 중국 택배협회 회장, 블랙리스트 제도 작성을 통해 사용자의 합법적 이익을 수호할 것
- ▶ 중국 하이난성 농업농촌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예방할 수 있는 독감 주사약을 개발했고, 임상 효과 양호
- ▶ 화태증권(601688), 후룬퉁 제도를 통해 처음으로 런던에 동시 상장할 예정, 조달액은 약 20억달러에 달할 전망
- ▶ 中 반도체 대표기업 자광그룹, 감독기관으로부터 회사채 발행 승인 취득, 공모방식으로 총 100억위안 발행

외국인들의 중국 A 주 매매 동향

후/선구퉁 누적 순매수액 추이



출처: Wind

강구퉁 누적 순매수액 추이



출처: Wind

당일 후/선구통 거래대금 상위 10개 종목들의 순매수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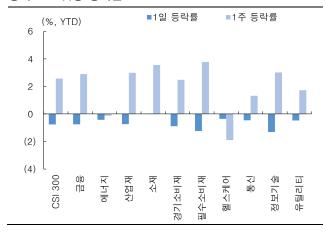
(단위: 백만위안, %)

| 후구퉁 해외투자자 순매수 상위종목 | | | | | 선구퉁 해외투자자 순매수 상위종목 | | | | |
|--------------------|-----------|--------|-------|--------|--------------------|-----------|-------|-------|-------|
| 순위 | 종목코드 | 종목명 | 순매수액 | 상승률 | 순위 | 종목코드 | 종목명 | 순매수액 | 상승률 |
| 1 | 600519.SH | 귀주모태 | 603 | (0.5) | 1 | 000063.SZ | ZTE | 296 | (0.5) |
| 2 | 600585.SH | 해라시멘트 | 198 | 0.6 | 2 | 300498.SZ | 온씨식품 | 147 | 0.2 |
| 3 | 600031.SH | 삼일중공 | 122 | (0.2) | 3 | 002157.SZ | 정방테크 | 106 | (1.3) |
| 4 | 600887.SH | 이리실업 | 92 | (2.1) | 4 | 000001.SZ | 평안은행 | 100 | (0.6) |
| 5 | 600036.SH | 초상은행 | 67 | (0.3) | 5 | 000858.SZ | 오량액 | 66 | (1.2) |
| 6 | 601398.SH | 공상은행 | 50 | (0.5) | 6 | 002714.SZ | 목원식품 | 6 | (8.0) |
| 7 | 600276.SH | 항서제약 | 49 | 0.4 | 7 | 002415.SZ | 하이크비전 | 1 | (1.7) |
| 8 | 600030.SH | 중신증권 | 19 | (1.3) | 8 | 000002.SZ | 만과A | (15) | (1.2) |
| 9 | 601318.SH | 중국평안보험 | (45) | (1.4) | 9 | 000333.SZ | 메이디그룹 | (53) | 0.1 |
| 10 | 600352.SH | 절강용성 | (250) | (10.0) | 10 | 000651.SZ | 격력전기 | (306) | (2.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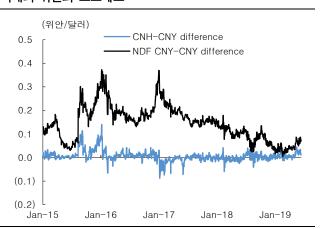
출처: Wind

주요 이머징마켓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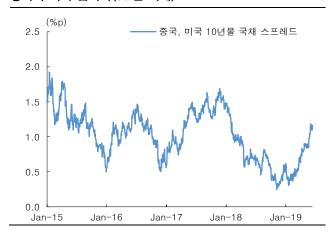
중국 CSI 업종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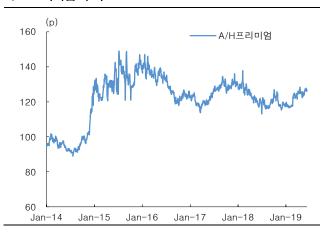
역내외 위안화 스프레드



중국과 미국 금리차(10년 국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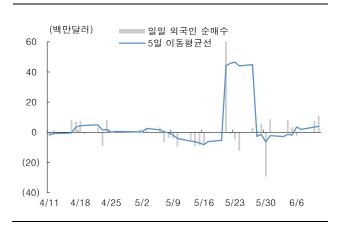
A/H 프리미엄 추이



인도네시아 JCI, 인도 센섹스 지수



베트남 증시 외국인 순매수



출처: Bloomberg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